

<226> 古下 송진우! 선견-탁견의 지도자!

✎ 미디어빌 | ⓒ 승인 2023.05.09 20:39

오래 전, 북중러-한미일 전체주의와 자유민주 간 충돌 내다봐
仁村 김성수와 중앙학교 동아일보 한민당까지 평생 함께해!
그의 일생은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과 건국 운동의 눈부신 기록!

본관 신평, 전라도 담양 고지면 손곡리 출신이다.

아호는 고하(古下).



의병장 기삼연이 고비산 아래 났으니, 산처럼 살라고 내렸다.

한민당 수석총무(House Speaker)로 초대 당수였다.

1919년 3·1 운동 때 민족대표 48인 중 한 사람이었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인촌 김성수와 함께 주도자다.

일본 귀국 후, 인촌이 인수한 중앙학교 교감이 된다.

3.1운동 한 달 전, 1919년 2월 고하는 교장에 오른다.

우남 이승만의 스승인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다.

민족대표로 체포돼 복역 후 2심 무죄로 방면된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에도 시달렸다.

석방 후 학교설립 모금으로 일경에 붙잡혀 다시 곤욕을 치른다.

인촌 등 20대 젊은 동지들과 힘을 합쳐 동아일보를 창립했다.

그는 동아일보 사장을 두 번씩이나 한다.

구속이 되면 잠시 고문 등으로 물러났다.

인촌은 일제 탄압이 느슨해지면 그를 주필 등으로 모셨다.

실력 양성만이 민족 독립을 가져올 거라는 믿음이 강했다.

인촌과 함께 물산장려 및 민립대학 운동에도 힘 쏟았다.

동아일보가 지원한 브나로드 운동으로 민족 각성을 시켰다.

일제의 만주침공에 이은 태평양 전쟁 전후에는 칭병하며 창씨개명과 임전 협력을 거부했다.

1939년 만 50세 때, 총독부로부터 시국에 부응해 동아일보가 자진 폐간할 것을 종용받자,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듬해 폐간 압력에 맞서 극비리에 도쿄를 방문해 일제 정계지도자들과 만나 폐간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협의했다.

귀국 길에 부산에서 일제 고등계 형사들에게 피검돼 정로서에 구금된다.

결국 동아일보는 강제 폐간의 운명에 처한다.

고하는 1943년 동아일보사 청산위원회 해체 후 4차의 무기정간과 1000여 회의 압수 삭제처분의 항일 기록을 가진 동아일보의 명맥을 유지하는 작업에 나선다.

재기의 날을 위해 동본사를 세우고 사장에 취임했다.

그 후 때를 보며 야인으로 창동에서 은둔하다 광복을 맞는다.

그 무렵 총독부에게 정권을 인수하라는 제의를 4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모두 단호히 거절했다.

여운형에게서 건준에 참여하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뿌리쳤다.

건준의 여운형과 남로당 박헌영에 대항해 오히려 국민대회준비위를 조직했다.

고하가 동아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 기연들도 기가 막힌다.

당시 여운형은 상해통신원, 박헌영은 판매직 사원, 허헌은 사장 궐위 때 직무대리, 만딸 허정숙은 신가정(여성동아) 기자로 근무한 바 있다.

고하는 임정 법통론을 주창해 한민당 창당 후 수석총무에 추대됐다.

45년 12월 1일, 중간된 동아일보의 8대 사장으로 다시 취임했다.

정치 언론분야의 강력한 두 기관 대표로서 해방정국을 이끌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 건국에 앞장선 사람이 고하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세에 밝은 그는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 회의 신탁통치 찬반을 놓고 신중론을 펼친 경세가였다.

앞서 설익식과 장철수 등을 통해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청취했다.

일제의 쇠망과 한반도의 운명을 내다보기 위해서였다.

구미측 동향과 알타회담과 포츠담선언도 깊이 탐구했다.

윤평중 교수가 특강에서 그가 집필한 사설의 깊이에 경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찬탁세력으로 몰려, 12월 30일 새벽 6시 원서동 자택에서 한현우 등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을 거두고 만다.

그들이 난입해 쏜 13발의 총격, 그중 6발을 맞고 바로 숨을 거뒀다.

국제정세에 밝고 균형감각까지 갖춘 민족지도자가 안타깝게도 증명했다.

좌우 대결로 나라 앞이 캄캄하던 시절, 고하는 최초로 암살당한 선각이다.

유학 전, 담양 영학숙 때부터 인촌과는 함께한 평생 벗이었다.

고하와 인촌이 의기투합해 만든 게 동아일보와 한민당이다.

고하는 성리학에 밝은 의병장 기삼연과 김직부에게 배웠다.

8일 오후,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서 탄신을 기렸다.

올해는 고하 탄신 133주년이자 서거 78주년에 해당한다.

나도 그를 기리려는 마음에서 잠시 다녀왔다.

늦게 도착하다 보니, 윤평중이 기념 강연을 할 때쯤 좌정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수석을 대신 보내는 성의를 보였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8일 고하 송진우 선생 탄생 133주년 추모식에서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photo 동아일보

자신의 석사 논문을 지도한 송상현 선생을 배려한 거다.

고하는 혹독한 고문에 생식능력을 잃었다는 집안의 정설대로 후사가 없어 만형의 3남을 아들로 입양했다.

고하의 양자 송영수가 동아일보 이사,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이어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선생은 고하가 입양한 아들 송영수의 무녀독남이다.

내각에선 주무부처인 보훈처의 박민식 처장이 왔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요 민족지도자, 독립운동과 교육, 언론, 정치까지를 망라해 나라를 위해 애국을 하다 갔다.

고하는 이립(而立)의 29세, 중앙학교 교장을 역임한다.

메이지 대학을 나온 인텔리 중 인텔리이긴 하다.

어릴 때부터 기삼연 선생 등에게 한학을 배우고, 인촌의 장인인 고정주 규장각 직각이 세운 서양식 학교에서 기본 공부도 마쳤다.

나도 잘 아는 담양 창평의 영학속에서였다.

창평 고씨 가문의 대장이던 고 직각은 일제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뒤 규장각 직각(국립도서관장) 직을 버린다.

담양으로 내려와 호남 준재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다.

그때 배운 사람들이 건국에 일조를 했다.

고하 송진우와 인촌 김성수, 백관수, 장덕수, 김병로 등이 그들이다.

고하는 1910년 강제 병합에 충격을 받아 자결을 결심한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와세다 대학을 관두고 귀국한다.

5년 뒤 부친 권유로 다시 도일, 메이지 대학 법과를 마친다.

1916년, 인촌이 인수한 중앙학교 학감을 거쳐 교장이 된다.

인촌 고하의 20대 후반, 세계사에 변화의 물결이 도도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민족자결주의의 물결이 넘쳐흘렀다.

3·1운동 1년 전, 중앙학교 중심으로 학생 동원을 조직한다.

20대 후반의 동지들은 숙직실에서 자며 나라를 걱정했다.

바깥 우남 이승만과 통하고, 국내 손병희 최남선과 제휴한다.

3·1 운동 기획과 이념과 정신을 퍼뜨린 주역이 바로 그들이다.

스코필드 박사가 '친구 송진우'라고 쓴 성경을 고하에게 줄 정도다.

고하는 3·1 운동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교장 때 교내에서 붙들려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갔다.

1년 반 동안, 고문과 옥고를 치른 뒤 2심에서 무죄가 된다.

1921년, 인촌의 권유로 1년 전 창간한 동아일보 제3대 사장(주식회사 초대)에 취임한다.

그는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라는 사설을 필두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앞장선다.

3·1운동으로 뜨거워진 교육열 향학열을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가열찬 의지에서였다.

민족 자부심을 높이려고 과학진흥에도 힘썼다.

그 일환으로 안창남 비행사 모국 방문도 꾀했다.

1923년, 동아일보 중심의 물산장려운동에도 힘썼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이립(而立) 34세였다.

이듬해 총독부가 관리하는 친일파들에 동아일보는 '소위 각파 유지연맹에 대하여'라는 사설로 질타했다.

이 때문에 친일파 박춘금의 권총 협박까지 당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일제의 겁박으로 결국 사장직을 3년 만에 사임하게 된다.

이듬해 1925년, 하와이 제1회 범태평양민족회의에 김활란 서재필 신흥우 유억겸과 함께 간다.

거기서 만난 우남 이승만의 망명 제의를 거절하고 국내에서 독립을 주도하기로 거듭 결의한다.

귀국 후 집필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명 논설을 연 12회 동아일보에 게재한 바 있다.

참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 패권국들의 부침까지 내다본 선견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윤흥중이 이와 관련해 특강을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본 빼어난 강의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네 번째, 패권 쟁투를 언급했다.

1000년여 전 신라 통일과 430여 년 전 7년 전쟁, 73년 전 한국전쟁에 이어 지금 목도하는 양안 갈등이 촉발할 전화(戰禍)까지...

아니, 윤흥중이 아니다.

고하가 100년 전 앞을 내다보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도모한 선견이 놀랍기만 하다.

이듬해, 고하는 모스크바 국제농민회본부에서 조선에 보낸 '3·1 운동 7주년 기념사'를 실는다.

'국제농민본부로부터 조선농민에게' 글 바람에 주필이던 그는 6개월 실행 선고까지 받았다.

두 번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 바람에 동아일보도 두 번째 무기정간을 당했다.

인촌은 이듬해인 1927년, 몸을 추스린 그를 제6대 사장에 다시 임명하는 용단을 내린다.

국제 문제에 정통한 그는 주요한을 장제스가 중국 주석으로 취임할 무렵, 대륙에 특파한다.

그리고 1929년 인도 시성 타고르의 특별기고, '조선은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을 받아 실었다.

교토의 제3회 범태평양민족회의에도 김양수 김활란 백관수 유억겸 윤치호와 함께 갔다.

고하는 1930년 동아마라톤 대회를 창립한 바 있다.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미국 네이션지 주필 축사를 게재해 다시 세 번째 무기정간을 당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듬해, 더 굵직한 쾌거를 감행한다.

제2의 애국가 '조선의 노래'를 현재명에게 작곡을 맡긴다.

충무공 묘소가 빛으로 넘어갈 지경이자, '민족의 수치, 채무에 시달리는 충무공 묘소'로 통탄했다.

이후 성금이 답지, 토지문서를 되찾고 '이 충무공 유적보존회'를 결성해 현충사 건립을 시킨 바 있다.

충무공 유적보존 운동도 일으켰다.

현충사를 중건하고, 덕수 이씨 문중에서 보관하던 검, 금대, 난중일기, 칙지 등 유물을 완공된 현충사에 안치했다.

동아일보 삽화가 청전 이상범에게 충무공의 영전을 그릴 것을 지시한다.

그해 6월 5일, 새 사당에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다.

그날 수만의 인파가 하얀 백의의 물결을 이뤘다.

단군 성적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부장을 지낸 현진건 기사를 전국 순회를 하도록 특파했다.

1933년에는 6년 세월 준비 끝에 조선어학회의 새 맞춤법을 채택하고 동아일보에 새 활자를 도입, 한글의 보존에도 힘썼다.

조선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월간 신가정을 창간한다.

1936년.

독일 베를린 하계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 가슴에 단 일장기를 삭제해 보도할 것을 강대석 제판기자, 백운선 사진기자, 이길용 체육기자, 이상범 삽화가에게 지시한다.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신문은 제4차 무기정간, 이어 신동아 및 신가정의 폐간과 함께 고하 역시 사장직에서 쫓겨났다.



일장기 말소사건 당시의 동아일보 보도 photo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족 지도자요 언론인으로서 고하의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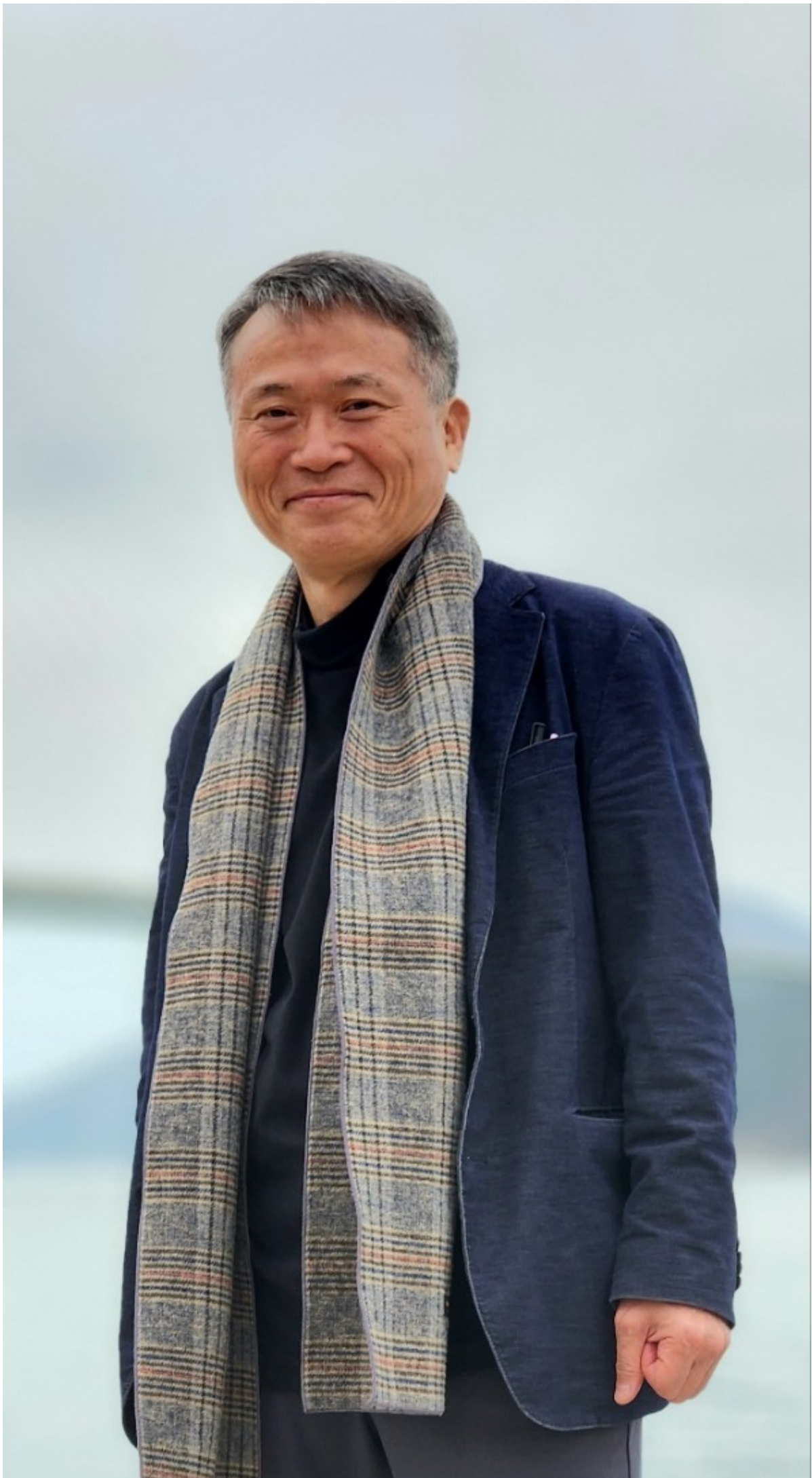
그래서 고하 얘기를 한 번은 더 써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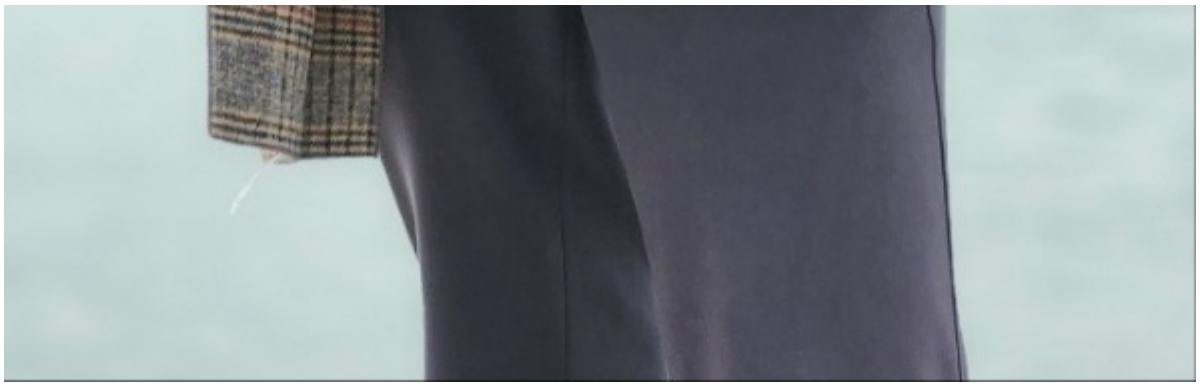
1945년 12월 30일 원서동 자택에 난입한 괴한들.

6발의 흉탄에 최초의 적색인지 백색인지의 테러로!

고하가 숨 거두기 전후의 스토리들은 가슴을 친다.

이만 총총.(계속)





필자 최영훈 前동아일보 편집국장 photo 최영훈



미디어빌 webmaster@mediaville.co.kr

저작권자 © 미디어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